

# 公園內 案内板內容을 再檢討했으면...

名所·稀貴植物은 精確한 學術的價値記述등

吳 判 龍

五台山의 一名「계수나무」와 그 案内板을 例로 들어본다.

지난 11월 12일 급한 용무로 五台山부근에 간김에 李根柱관리소장과 함께 五台山의 자랑거리의 하나인 일명 계수나무라 불려지고 있는 나무를 감상했다. 月精寺에서 上院寺로 가는 도중 「관대걸이」란 곳에 작은 매점이 있고 그 옆에 보기드문 재래종 낙엽송이 있다. 그리고 上院寺境內에도 똑같은 크기의 한그루가 있었다. “관대걸이”쪽의 案内板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곳은 李朝初 世祖大王이 上院寺에서 수양 중 목욕할때 衣冠을 걸어둔 곳이라하여 관대걸이라 한다. 이나무는 재래종 낙엽송으로 일명 “계수나무”라고도 하며, 白頭山중턱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樹木으로 南韓地域에는 단2그루밖에 없으며 樹齡은 약 80年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부터 約2km 서쪽 西台長嶺 밑에는 于簡水(우통수)라는 샘이 있어 물의 비중과 맛이 특이하고 中國 楊子江의 中冷과 같다고 하며 漢江의 始源이라 傳한다. 五台山國立公園管理事務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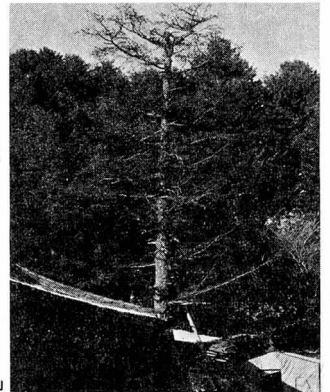
이 안내판은 공단이 平昌군에서 관리를 인수받기 전부터 있던 것을 學界의 考證을 받을 겨를도 없어 그냥 도색만 다시했다고 들었다. 지난 4월 본회 五台山支部창립당시에는 「계수나무가 있는데 眞否를 알고 싶다」는 말을 李관리소장으로부터 듣고도 바빠서 직접 못보았던 것이 후회스러웠다. 돌아온 후 여러 곳에 물었으나 시원한 답이 없고 前本회 학술담당 부회장이었던 任慶彬박사(현 원광대교수)의 나무百科에는 활엽수 그림과 분포지는 中國·日本특징이 낙엽교목·자웅이주·잎뒤粉白色으로 되어있고 一石 李熙昇박사의 한국대사전에는 상록교목이며 針葉의 그림이 있다. 그러면 一名계수나무란 말이 왜 나왔는가에 대해 알아본즉 平昌郡誌가 뒷바침한듯. 五台山관리사무소가 조사한 平昌郡誌에는 전기한 于簡水애기와 郡의 稀貴樹欄에 「五台山月精寺에 있는 우리나라 在來種 落葉松으로 白頭山에는 많이 生育되고 있으나 南韓에는 단1대(실제는 2그루)밖에 없다고 하는데 74년 6월 국립공원평가교수로 온 高大 金樟洙교

수에 의해 밝혀졌으며 수령은 80年으로 보고 있다」로 記載되고 있다. 金樟洙박사(林政研究會長·高大 명예교수·本會理事·국립공원위원)는 이에 대해 74년에 밝혔다는 대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전제, 우리나라 南쪽에는 적고 北쪽에 많은 재래종 소나무의 一種인 잎갈나무인데 江原道에서는 통칭으로 계수나무라 부르고 있다고 시인했다.

金박사는 日本서는 「朝鮮カラマツ」라 부르는 소나무의 特異種이라고 하고 南韓에는 이곳밖에 없다고 단정한적은 없고 더 조사해볼 일이라 했다. 그런데 山林廳의 생태연구자의 한사람은 「계수나무는 활엽수이며 우리나라 山野엔 자연수종은 없으나 光陵山林博物館 정문에 아름답리 큰 계수나무가 있으며 얼핏 프라타나스같은 활엽수」라고 알려준다. 그는 五台山의 것은 在來鍾잎갈나무가 틀림없을 것이라 하였다. 于簡水에 관해 「比重」이란 表記는 무엇이며 「단 두그루밖에 없다」는 斷定도 문제다. 五台山이 漢江의 始源이 事實이면 確定的으로 記述해야 教育的인 價値가 있을 것인데 傳說을 傳하듯 하는 表記는 學術調査를 거쳐 是正해야 自然研究에 도움이 되고 内外의 웃음거리가 안될 것이다. 그리고 74년에 수령이 80년이라면 88년 현재는 94년생이다. 이러한 수령표시에는 발견당시의 年代표시가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무百科」의 계수나무잎  
英名: Katsura tree  
學名: Cercidiphyllum  
Japonicum



上院寺경내의 재래종 낙엽송 일명「계수나무」 針葉이 떨어지고 있다.

(筆者: 本會 事務局長)